



법조인 동정

##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재형 前 대법관

한국신문윤리위원회(이사장 서창훈)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신문윤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54차 이사회를 열고 김재형(58·사법연수원 18기)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밝혔다.

김재형 前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.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, 3년 반 뒤인 1995년 모교인 서울대학교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다.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다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귀했다.